

태권도 여자 49kg급 김소희 금메달

패자부활전 통해 극적으로 살아난 김태훈 동메달 획득... 여자골프 박인비·김세영 첫날 공동 2위 선전

한국 태권도가 종주국의 체면을 살렸다. 태권도 종목이 시작한 첫 날 한국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봤다.

여자 태권도의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극적으로 살아난 김태훈(22·동아대)은 2연속 승리를 거두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소희는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티아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에 7:6로 승리했다.

한국 태권도가 이번 올림픽에서 따낸 첫 번째 금메달이다.

이번 대회 첫 경기(16강전)에서 홀리사 디에스 칸세코(페루)를 10:2로 완파한 김소희는 8강전에서 태국의 파니파크 옹파타나키투를 짜릿한 역전승(6:5)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폴란드인트진(연장전) 접전 끝에 프랑스의 야스미나 아지즈를 1:0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김소희는 이번 올림픽이 생애 첫 출전이지만 2011년 경주,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 세계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정상급 선수다.

2013년과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이번 올림픽 금메달 기대를 받던 58kg급 김태훈은 16강전에서 터윈 한프탈태국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금메달 꿈을 접었다.

생애 첫 올림픽을 이데로 마감하는 듯했으나 한프탈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극적으로 패자부활전에 나서게 됐다. 패자부활전에서는 호주의 사프안 할릴에 4:0 완승을 거뒀다.

이후 동메달결정전에서 카를로스 루벤 나비로 발데스(멕시코)에 7:5로 승리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인천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쥔 김태훈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그랜 드슬랩(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 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석권)을 이룰 수 있었지만 좌절했다.

태극양자들은 여자 골프에서 선전했다. 여자 골프가 116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 가운데 첫 날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김세영(23·미래에셋)이 나란히 공동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단독 1위로 먼저 경기를 마쳤지만 태국의 에리아 쭈타누간이 6언더파 65타로 치고 올라가면서 박인비의 1라운드는 순위는 공동 2위가 됐다.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리오카 아레나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여자 태권도 49kg급 결승에서 한국 김소희가 세르비아 티아나 보그다노비치를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김소희는 7:6으로 승리,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8월 생애 첫 메이저대회(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을 달성한 쭈타누간은 올해에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4승을 거둔 선수다.

올 시즌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제대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박인비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여부를 고심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정교한 샷과 퍼트,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타수를 줄여나가며 '골프 여제'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올 시즌 계속 이어진 부상으로 인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세계랭킹 5위 김세영은 17번홀(파3)까지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18번홀(파6)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박인비와 동타를 이뤘다.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캐나다의 '골프 천재소녀' 브룩 헨더슨 스테이지 루이스(미국) 등과 함께 공동 19위(1언더파 70타)를 마크했다.

양희영(27·PNS찬호)은 이날 버디 2개와 보기 4개로 2타를 잃는 등 비교적 부진한 경기를 펼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2오버파 73타로 공동 39위다.

한국 남자 배드민턴의 손완호(28·김천시청)는 중국을 넘지 못하고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손완호는 남자 단식 8강에서 세계랭킹 2위 천룡(27·중국)에 1-2(11-21 21-18 11-21)로 졌다.

첫 올림픽이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16강 탈락한 손완호는 이번에도 메달권에 다가가지 못한채 올림픽을 마쳤다.

손완호가 탈락하면서 한국 배드민턴은 남녀 단식·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결승 진출자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다.

여자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한 정경은(26·KCC인삼공사)·신승찬(22·삼성전기)이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 한국 배드민턴은 노메달로 이번 올림픽을 마치게 된다.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남자 단체전마저 메달 사냥에 실패하면서 한국 탁구는 사상 첫 빈손으로 올림픽을 마쳤다.

주세혁(36·삼성생명), 정영식(24·미래에셋대우), 이상수(26·삼성생명)로 팀을 꾸린 한국 남자 탁구는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에 게임스코어 1-3으로 패해 4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08년 베이징 대회 동메달과 2012년 런던 대회 은메달을 차지했던 남자 대표팀은 연속 메달 획득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탁구가 올림픽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1988년 탁구가 정식 종목이 된 이후 처음이다. 런던 대회까지 24년 간 빠짐없이 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한국 카약 대표팀의 최민규(24·부산시청)·조광희(23·울산시청)가 카약 2인승 200m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최민규·조광희는 카누 스피리트 남자 카약 2인승 200m 예선 1조에서 6위(33초525)에 그쳐 각 조 1위팀에게 주어지는 결승 직행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2조로 준결승에 나간 최민규·조광희는 33초787로 결승선을 통과, 조 4위에 올랐다. 4위에 머문 최민규·조광희는 각 조 상위 3개 팀이 진출하는 결승에 나서지 못했다.

이날 2개의 메달을 더한 한국은 금 7개, 은 3개, 동 6개로 종합 1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이 금 30개, 은 32개, 동 31개로 종합 1위를 질주했고, 영국(금 19개·은 19개·동 12개), 중국(금 19개·은 15개·동 20개)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기자



무주 WTF 조직위, 리우올림픽 현지 홍보활동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리우 현지를 방문해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리우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명소인 코파카바나 해변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홍보타운 K-타이거즈의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올림픽에서 직접 쓰이는 전자호수 체험 가상겨루기 체험, 티셔츠, 열쇠고리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지인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김민근기자

전북도 연이은 대통령기 전국대회 대회 개최

전북도내에 대통령기 전국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타 지역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순천에서 열린 '제42회 전국남녀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8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2회 대통령기 시·도 탁구대회'와 18일부터 22일까지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리는 '제35회 대통령기전국수영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날로 크고 작은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우리도 선수들의 경기력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체계적인 체육과학 이론강의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스포츠과학교실은 전문체육 분야 선수, 지도자, 감독 등을 대상으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최초 시행된다.

최초 시행되는 이번 스포츠과학교실은 근전도 분석, 동기 유발과 경기심적 운동생리, 역학, 심리 등 체계적인 스포츠 이론교육 강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현원 전북체육회 진흥처장은 "전라북도 지도자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러시아 클리시나, 멀리뛰기 메달획득 실패

러시아 육상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멀리뛰기 선수 다리아 클리시나(25)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클리시나는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멀리뛰기 결선에서 6m83을 뛰어 12명 가운데 9위에 그쳤다. 우승은 5차 시기에서 7m17를 뽐낸 미국의 티아나 바틀레타가 차지했다. 클리시나는 국가차원의 도령 개입 의혹을 받은 러시아 육상 선수 68명 중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 승인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